



롯데는 시대착오적인 대형점포 추가입정

산업혁명 당시 경제적 약자들이 재벌의 횡포에 맞서고자 만든 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정아름 기자

협동조합으로 양극화 파고 넘는다

민주적 협동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위기에도 강해

12월부터 5인 이상이면 업종 제한 없이 설립

지난해 하반기 뉴욕 월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이른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Street)’ 시위는 상위 1% 부자와 나머지 99% 일반인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1% 부자는 미국인 전체 소득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비중이 30년 전의 두 배로 커진 것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화됐다는 뜻이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정부도 시장

도 아닌 공동체적 해결 방식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유엔은 올해를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둘 다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 주는 조언자”라고 평가했다. 협동조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 위기에도 강할뿐더러 저성장 시대에 새 일자리

시장 중심 경제체제와 정부 주도 경제체제의 양 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떠오르고 있다. '이용자가 주인인 회사'라는 점에서 주주에게 소유권이 있는 일반 주식회사와 구별되며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2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져 '일하는 복지' 실현은 물론이고 양극화 해소에도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창출에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2010년에 다국적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약 8억 개에 그친 반면 협동조합은 2억 개가 더 많은 10억 개를 만들어 냈다.

협동조합이 대안이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주인인 회사'라는 점에서 주주에게 소유권이 있는 주식회사와 구별되며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도 다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한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 소유, 1인 1표 행사, 배당 제한 등이 협동조합의 고유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올 1월 공포돼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특별법에 의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8개 종류만 조합원 300명 이상에 한해 허용할 뿐이고 다른 분야는 영리 활동 목적의 협동조합 설립이 차단돼 있다.

'일하는 복지'와 '내수 활성화' 기대

정부가 굳게 가로지르고 있던 협동조합의 빗장을 대번에 푼 이유는 무엇일까? 협동조합기본법이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생존권을 지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AP의 뉴스를 받는 곳은 수천 곳에 달하며 최근에는 서방 언론사 최초로 북한에 지국을 개설하기도 했다. 토머스 켈리 AP 사장(좌)과 김병호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이 AP 평양지국 출범식을 갖고 있다. AP_연합뉴스

아가 '일하는 복지'라는 안전판을 구축하지는 취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은 시장 중심 경제체제와 정부 주도 경제체제의 양 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 준다"고 말하고 "우리는 두레, 품앗이 등 협력의 유전자가 무척 발달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있어 이를 잘 살리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협동조합이 발전할 토양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에 비해 법적 규제가 적고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그동안 주식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업 생

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대리운전기사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사에 내고 있는 높은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분식집 주인들이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을 만들어 식자재 구매나 메뉴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선진국처럼 복지나 지역사회사업 부문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돌보미나 육아를 비롯한 특수직 노동자들의 8천여 사업체가 협동조합 전환이 가능해진다. 공익이나 사회적 서비스 목적의 협동조합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쌓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약자를 위한 제도다. 19세기 산업

혁명 당시 막대한 자본을 거머쥔 이른바 '재벌'이 탄생했다. 힘없는 경제적 약자로 몰린 서민들은 연대를 통해 재벌의 횡포에 맞서고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할 훌륭한 대안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민주주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후기산업사회로 옮겨가면서 협동조합의 가치는 더욱 빛을 내고 있다. 일부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은행의 비중이 전체 은행권의 20%를 넘는다. 소매업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특히 농·축산 분야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이 4만3천여 개나 된다. 포도주나 과일, 야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품목별 협동조합이 위세를 떨치고 있고 무주택자들이 만든 주택협동조합, 노숙자와 실직자들의 자립을 돕는 노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



미국에 섀키스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햇사레'가 있다. 햇사레는 경기도 이천 장호원과 충북 음성 감곡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복숭아 상표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수출까지 한다. 사진_민용기 기자

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스페인의 협동조합기업 몬드라곤은 스페인 재계 10위권으로 자산 규모가 현대·기아차보다 크다.

협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세계 경제 위기에서 그 위력이 십분 발휘되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나 은행들은 낮은 차입의존도, 높은 내부유보율, 안정적인 계통매출구조 등으로 외부 차입에 의존하며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국 협동조합 사례

협동조합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테파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는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날개가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길지 못한 호박벌이 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훌륭하게 날고 있다”고 전제하고 “협동조합 역시 자본주의 시각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하지만 협동조합적 경영을 통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FC바르셀로나 세계 최고 축구클럽의 하나인 FC바르셀로나는 1899년 11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주도(州都)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스페인 역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수도 마드리드가 본거지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은 1936년 반정부 쿠데타로 내전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 카탈루냐를 탄압했다. 내전 와중에 클럽의 회장이 프랑코군의 공격으로 숨지는 아픔을 겪은 FC바르셀로나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클럽으로 자리매김했다.

FC바르셀로나는 회원이자 출자자인 17만3천여 명이 모두 주인이며 회원의 투표로 구단주 격인 회장을 뽑는다. 회원 경력 1년 이상이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은 이사회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면 전체 회원을 대표해 장기 계획과 예산 등을 결의한다.

대기업 총수가 스스로 구단주가 되거나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자인 회원들이 구단주를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회를 통해 클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FC바르셀로나의 독특한 구조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으로 우뚝 서는 밑바탕이 됐다.



오늘날 가장 성공한 협동조합의 하나로 평가받는 썬키스트. 그 시작은 도매상의 횡포에 맞서 독자적인 유통 경로를 개척한 오렌지농가들의 협동이었다. EPA_연합뉴스

AP 통신사(또는 뉴스통신사)는 신문, 방송, 잡지 등 다른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로 한국에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있고, 영국 로이터통신,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 등이 있다. 미국의 AP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AP는 1846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입항하는 선박으로부터 유럽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결성한 ‘항구뉴스협회’가 기원이다.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들어온 배에 기사를 서로 올려 보내려고 신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그러다 똑같은 정보를 얻으려고 이중, 삼중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출자자인 회원들이 구단주를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회를 통해 클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FC바르셀로나의 독특한 구조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으로 우뚝 서는 밑바탕이 됐다. AP_ 연합뉴스

고 힘을 합쳐 설립한 것이 통신사다.

AP의 뉴스를 받는 곳은 2000년 현재 미국 내에서만 방송국 5천여 곳, 신문 1천700여 곳, 해외의 신문·방송·통신은 121개국 8천500여 곳에 달한다. 세계 300개 이상의 지국에서 약 3천7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방 언론사 최초로 북한에 지국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런 AP의 주인은 바로 미국 내 1천400여 회원언론사다. 이들 회원사가 발행 부수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AP의 201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5억1천만 달러에 출자금 1억5천만 달러다. 뉴스 취재와 전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연합전선 구축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은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의 사례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썬키스트 “썬키스트는 세계를 선도하는 오렌지 공급업체이지만 오렌지농장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한 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지만 여러분은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썬키스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이다. 왜 오렌지농장도, 주식도 없을까? 바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썬키스트(Sunkist)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오렌지를 대표하는 상표다. 1840년대에 재배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1870년대 미국대륙횡단철도 개통을 계기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덕분에 오렌지산업은 크게 번성했지만 정작 오렌지농가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매상들이 판매된 오렌지 대금만 지불하고 재고분은 고스란히 농가 부담으로 떠넘기는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결국 몇몇 오렌지농가가 1893년 썬키스트의 전신인 ‘남캘리포니아거래소’를 만들어 판매와 유통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1905년 무렵에는 조합원이 5천여 농가로 불어나 캘리포니아 오렌지산업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썬키스트란 ‘태양의 입맞춤’이란 뜻으로 거래소에서 고품질의 오렌지를 가려내기 위해 붙인 후 최고급 오렌지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가장 성공한 협동조합의 하나로 평가받는 썬키스트. 그 시작은 도매상의 횡포에 맞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개척한 오렌지농가들의 협동이었던 것이다.


웰치스 우리나라는 그리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창업자나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생활용품기업 P&G는 윌리엄 프록터와 제임스 갬블이 만든 회사이고 컴퓨터업체 휴렛팩커드(HP)는 빌 휴렛과 데이브 패커드가 창업했다. 포도 주스로 유명한 웰치스도 개발자 토머스 웰치 박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감리고 신자인 웰치 박사는 술을 몹시 혐오했다. 교회 성찬식에 포도주가 사용되는 게 못마땅했던 그는 포도를 가공해 발효를 막는 실험을 거듭한 끝에 1896년 무알코올 포도음료 제조에 성공했다. 오늘날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웰치스의 탄생이다.

사실 웰치스 자체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다. 하지만 웰치스의 주식은 모두 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가 소유하고 있다. 연합회는 미국 1만2천여 포도농가의 협동조합들이 조직한 것이므로 웰치스는 결국 포도농가들이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연합회는 왜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만들었을까? 해답은 협동조합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대개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에 비해 대규모 자금 조달과 신속한 시장 대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목적은 조합원의 이해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반면 주식회사의 목적은 투자자인 주주의 이윤 창출을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웰치스 사례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주식회사냐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협동조합의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의 장점을 활용하는 길을 보여준다.

조합끼리 협동으로 시너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가 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썬키스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햇사레’가 있다.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글었다’는 뜻이 담긴 햇사레는 경기도 이천 장호원과 충북 음성 감곡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복숭아 상표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수출까지 한다. 썬키스트가 미국 최초의 농산물 상표라면 햇사레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명칭을 쓰지 않는 독자적 농산물 상표의 효시다. 썬키스트가 남캘리포니아거래소를 통해 탄생했듯이 햇사레도 장호원과 감곡의 복숭아농가들이 모여 만든 ‘연합사업단’에서 비롯했다. 다만 썬키스트는 개별 농가들이 도매상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모였으나 햇사레는 지역 농협들이 상호 과당 경쟁을 막고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뭉쳤다는 점이 다르다.

햇사레의 성공은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른바 ‘브랜드 효과’를 협동조합도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햇사레도 그렇지만 ‘안성맞춤 한우’ ‘잎맞춤 거봉포도’ ‘한눈에 반한 쌀’ 등도 협동조합 상표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햇사레는 개별 농가들이 협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을 넘어 조합끼리도 연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한 번의 협동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2차, 3차 협동전선을 구축하면 파이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협동조합에서 ‘협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은 1인 1표를 갖고 직접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필요 자본을 조성하는 데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그 자본은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4. 자율과 독립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와 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과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방과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해 협동조합들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봉사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